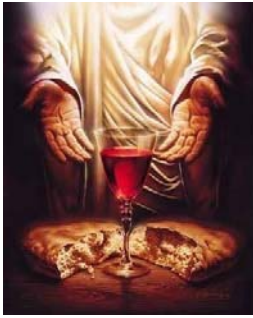


양형영성체 (양형성찬)



양형성찬이란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하는 것을 말한다.

미사 때에는 사제와 교우들이 성체뿐 아니라 성혈도 영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양형성찬을 실시하였다.
중세기 중엽까지는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서방전례에서 교우들의 성혈성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12세기부터이다.

그 주된 원인은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혈을 가끔 흘리는 등 사목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여기에다 박차를 가한 것이 당대의 신학이었다.
즉 성체신심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러 가지 배경으로 말미암아 성혈성찬이 없어져도 큰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15세기에 들어서자 양형성찬이 구원의 필수조건이라는
후스 이단을 비롯하여 일부 지역에서 성혈성찬 운동이 나타났다.
그래서 1415년의 콘스탄스 공의회는
평신도의 성혈성찬을 공식으로 금지시켰다.
1917년에 제정 발표된 교회법전은
교우들의 성찬은 빵의 형상으로만 실시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의 판단에 따라
서품미사, 수도자 서원미사, 세례미사 등에 성사를 받거나
서원을 한 당사자는 양형성찬을 할 수 있게 하였다(전례헌장 55항).
그후에 경신성의 「성찬신비」훈령과 「성사적 성찬」 훈령,
그리고 1970년의 「미사 총지침」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다.

현행 규정은 교구장이 적절한 교리교육을 전제로 하여

세례, 견진, 혼인, 서품, 서원, 독서직과 시종직, 선교사 파견, 병자, 노자

등의 미사나 예식 때에 성사를 받거나 서원을 하는 당사자와
대부모, 부모 등에게 양형성찬을 허용할 수 있다.

교회가 아직 성혈성찬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성혈을 흘릴 위험이 크거나

불편하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등 실천사목상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